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a0849a0c60be0834a1ecfede55bcf13e866ccb84bdb6d67506ec3c9ec10cfc64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**주요 뉴스:** 미국의 소비심리 악화, 향후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
 - 미국 바이든 대통령, 주요 경제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
 - ECB 라카르트 총재, 유로존 경제는 기존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지원 필요
 - 주요 투자은행, 미국의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- **국제금융시장(주간):** 미국은 인플레이션 심화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 강화
주가 하락[-1.7%], 달러화 강세[+0.6%], 금리 상승[+2bp]
 - **주가:** 미국 S&P 500 지수는 연준의 태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등이 원인
 유로 Stoxx 600 지수는 ECB의 긴급자산매입 축소 관련 불안 등으로 1.2% 하락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주가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6%, 0.2% 하락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등이 원인
 독일은 미국의 영향과 공급 물량 확대 등으로 3bp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0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9/10일	9/3일	전주말대비			9/10일	9/3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458.6	4,535.4	-1.69%	국채 금리 10y	미국	1.34%	1.32%	2bp
	유럽	466.34	471.93	-1.18%		독일	-0.33%	-0.36%	3bp
	중국	3,703.1	3,581.7	3.39%	CDS 5y	한국	17bp	18bp	-1bp
	일본	30,382	29,128	4.30%		중국	33bp	33bp	0bp
	한국	3,125.8	3,201.1	-2.35%	위험 지표	EMBI+	351	348	3bp
환율	달러지수	92.58	92.04	0.59%		VIX	20.95	16.41	27.67%
	유로화	1.1814	1.1880	-0.56%		WTI유	69.72	69.29	0.62%
	엔화	109.94	109.71	-0.21%	원자재	구리	444.8	432.6	2.83%
	위안화	6.4443	6.4552	0.17%		금	1,787.6	1,827.7	-2.20%
	원화	1,169.1	1,157.0	-1.0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의 소비심리 악화, 향후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

- 최근 소비자의 경기회복 기대는 델타 변이의 확산,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, 학교의 등교 수업 지연 등으로 크게 감소.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
- 부채 상한 확대 등 주요 경제 현안 관련 의회의 갈등도 소비 관련 긍정적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.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에 비해 큰 폭 하락했고, 최근 발표된 고빈도(high frequency) 지표들도 소비활동 감소를 시사
- BofA의 Michelle Meyer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높았던 소비증가 기대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. 골드만 삭스는 하반기 소비지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, 모건 스탠리도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3/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낮춰서 제시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주요 경제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

- 자신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지만, 그 동안 주장했던 주요 경제 정책은 인기가 높다고 언급. 블룸버그는 현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경제 관련 도전은 약속했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안의 의회 통과라고 지적
- 민주당의 만친 상원의원은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를 9/27일까지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. 또한 3.5조달러 규모의 지출계획 반대를 재표명

■ 미국 정부, EU에 철강 무역분쟁 화해를 위한 방안을 제시

- 관계자에 따르면, 이번 제안은 금년 말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내용은 관세율과 쿼터 시스템 등을 포함. 또한 양측의 대표들은 9/29일에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. 다만 미국과 EU 당국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의 언급을 회피

■ ECB 라가르드 총재, 유로존 경제는 기존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지원 필요

-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아직 코로나 19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평가. 또한 바람직한 금융여건 조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

■ EU, 회원국의 재정 규정의 수정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

- 최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큰 폭 상승. 이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, 재정적자 비율을 제한하는 안정 성장 협약의 엄격한 적용이 타당한지 논의할 전망

■ 프랑스 경제장관, 금년 및 내년 재정적자는 경기회복 영향으로 예상치 하회 전망

- 르메르 장관은 금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8.4%로 기존 예측(9.0%)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. 국내경제가 점진적으로 코로나 19 영향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.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6%로 제시하여 이전(5%)에 비해 상향

■ 중국의 8월 신규 위안화 대출, 1.2조위안으로 예상치(1.3조위안) 하회

- 인민은행, 이번 결과는 전월(1.1조위안) 대비로는 증가.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각각 5755, 6963억위안으로 모두 전월(4059, 4334억위안)에 비해 증가. 일부 전문가들은 신용증가의 예상치 하회는 경기둔화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평가

■ 주요 투자은행, 미국의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
- 골드만 삭스의 Dominic Wilson은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지만 경기는 정점을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하며, 이에 헤지가 필요하다고 언급. 특히 단기적 시각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증시 위험 대비 투자자의 안도감이 과도하다고 지적
-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역시 증시는 밸류에이션 축소 구간에 진입했으며, 우량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

■ OPEC, 내년 원유 수요예측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

- OPEC+ 관계자들은 향후 델타 변이의 확산 등으로 경기회복의 속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. 특히 아시아에서 코로나 19 여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도매재고(전월비): 0.6%, 6월(0.6%), 예상치(0.6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13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 8월 생산자물가, 호주 중앙은행 총재 강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유럽 경제, 회복 최적점(sweet spot)을 논하기에는 다수 위험 요소 상존 - Financial Times**
(Europe's recovery hits 'sweet spot' but economists see risks gathering)
 - 유로존은 양호한 2/4분기 성장률,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, 투자 증가와 실업률 하락 등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견해 부상. Barclays의 Silvia Ardagna는 잉여저축과 노동시장 개선이 내년에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
 - 하지만, 글로벌 공급망 차질,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등은 성장 지속성에 제약 요인. UniCredit의 Erik Nielsen은 유로존의 3/4분기 성장률은 양호하겠지만, 연말에는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
- **글로벌 자본지출 증가, 기업의 코로나 19 이후 시대 대비 등에 기인 - 블룸버그**
(Global Capex Booms as Companies Prepare for Post-Pandemic Era)
 -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 19 위기는 극복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자본지출이 큰 폭 증가. S&P Global Ratings은 올해 전세계 기업의 자본지출이 반도체, 소프트웨어, 운송,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13%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이는 소비자 수요 증가, 공급망 차질 극복 및 성장을 위해 자본지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. Nomura의 Rob Subbaraman은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종료 이후에는 세계 경제 성장에서 기업투자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
- **연준의 통화정책, 급여소득자와 채권투자자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 - WSJ**
(Easy Federal Reserve Policy Hasn't Helped Wage Earners)
- **미국 주택시장, 투자 제한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 - Financial Times**
(The US needs to make homes more affordable — and available)
- **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, 신흥국 자산 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소지 - 블룸버그**
(Cracks in China's Growth Put Risk-Market Rally on Shaky Ground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